

사·부·대·중

복권 만능주의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간접세에 편중되어 중산층 이하의 국민이 부유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빈부격차의 골을 깊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영세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복권발행에 열안이 되어있다. 주력복권·월드컵복권·기술복권·즉석복권·인터넷복권 등 복권왕국(가)이 되어버렸다.



이귀인 한국석복선협회 회장

(당첨금 1만원 이하)이 전체 당첨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바, 소액 당첨자 대부분은 당첨금을 현금으로 찾지 않고 다음 번 복권으로 바꿔치기를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팍이 되고 만다. 당국은 복권발행으로 주먹을 쥐고 운동장을 건설하였다가 자랑할 지 모르지만, 복권의 수요가 중산층 이하의 국민이라고 볼때 이러한 사행성 조장행위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영수증 주고받기·신용카드 매출시에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권장할 만 하다. 왜냐하면 상거래 질서 확립·신용사회 정착으로 투명하게 징수된 세금의 일부는 납세자에게 포상의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되고, 조세정책 발전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요행을 좇는 무리가 되지 말고 백장회해선사의 가르침을 '一日不作, 一日不食'을 실천목적으로 받아들여 생활과 수행을 동시에 겸비하는 근면 성실한 불자로 거듭나자.

복권의 단골고객은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에서 찜지돈을 털어서 복권을 사 당첨되기를 빌어보는 중산층 이하의 민초들이다. 당국은 1등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제시해 놓고 당첨확률·당첨금은 복권발행액의 약40~50%라고 홍보하고 있다. 한마디로 바람을 넣고 있는데 복권에는 곳곳에 함정과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자꾸 복권을 사다보면 적은 지출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열심히 노력하기 보다는 행운과 요행을 갈구하게 된다. 또한 복권 운영성 소액 당첨금

논란을 받고 있는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과 관련, 현행 불사문화의 점검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최로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철승(한국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씨와 이평래 교수(충남대 철학과)가 '불사 단상(斷想)'과 '바람직한 불사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으며, 박원순

조계종 中信會 토론회 '불사문화 점검과 방향'

참여연대 사무처장, 백남석 인드라마 집행위원장, 김동훈 경복련 운영위원장, 최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

섰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현행 불사문화가 조형물이나 건축물을 조성하는 외형적인 불사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교육 복지 문화 등 내적 불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는 정작 불사의 주체가 되는 스님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주었다.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참불사 교화설법과 수행"

발제 I : 불사 단상(斷想)

진철승 <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불사의 본래 의미는 교화설법과 수행이다. 한국불교사에서 최근처럼 대형불사가 난립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대형불사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우선 총무원 문화부 소속으로 정보보존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고, 설령 활동을 하더라도 불사를 규제하거나 혹은 지원할 아무런 힘이 없다. 둘째로 불사를 하더라도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단의 논의나 협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셋째, 정작 필요한 불사가 있더라도 중단은 공식적으로 지원할 기금이 없다. 그러다보니 주지 스님이 자기 신도로부터 확보한 대형불사 자금에 대해 이러저러한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이밖에 불사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나 사업체와의 관계, 국가예산의 활용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해인사 청동대불을 조성하겠다는 기본적인 의도는 순수하고 목적이 합당한 듯하나, 여러 반대자들의 의견 또한 다양하고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과 단전을 모신 법보종찰이다. 그래서 혹여 굳이 수행도량에 수많은 신자들이 몰려와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청동대불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법보종찰에서 해야 할 가장 큰 불사는 대장경의 보존과 그 속에 깃든 부처님 말씀의 흥취이기 때문이다. 대장경 전산화, 역경, 영역(英譯), 이를 위한 인재양성과 스님교육이 더 시급한 과제다. 해인사도 그렇지만 모든 사찰이 불사시 사찰환경기본계획서부터 마련해야 한다.



현행 불사문화의 점검과 바람직한 방향 모

일시 : 불기2545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문화교육관



바람직한 불사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토론

"불사 공개심의 필요"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수행과 교화만으로 종교가 존재할 수 없다. 위대한 건축물과 불상도 존재해야 한다. 옛 문화재를 보면 문화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포교의 결정체임을 누구나 알 것이다. 다만 그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사를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찰운영위원회만이 아니라 중앙기관의 결의도 거쳐 등록하고, 공개적이고 전문가적인 과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불사문화가 불교의 정신을 퇴색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해인사 대불 조성 논란을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복지 등 보살행 불사" 백남석 <인드라마 집행위원장>

사찰에서 교육이나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면 신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불상을 조성한다면 너도나도 앞장선다. 이러다보니 사찰도 필요한 불사를 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작복(作福)보다는 기복(祈福)에 근거한 불사가 더 많은 애기다. 더구나 계율을 잘 지키고 포교에 열

심인 스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불사를 했느냐를 스님 평가 잣대로 삼고 있다. 불사문화가 왜곡된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불사에도 조성 불사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인권 복지 교육 등 보살행 위주의 불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외형위주 우상 일뿐" 김동훈 <경복련 운영위원장>

현재의 대형불사 문화는 근본적으로 불교와 물질적 상관관계를 되물지 않을 수 없다. 불교는 절제를 강조하고 욕망극복을 가르치는데, 그런 점에서 대형불사는 불교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때 대형불사를 한다는 것은 도

덕적으로도 옹호할 수 없는 문제다. 앞으로의 불사는 자비행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심에서 건물 지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복지사업 등 사회공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불사를 해야 한다. 외형 위주의 불사는 단지 우상 일 뿐이다.



"신도의견 충분히 반영" 최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불사를 해나가가기까지의 절차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까지의 불사는 대부분이 주지스님 과 조성업자 등 일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져 왔다. 신도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그런 노력 자체도 없었다. 불사와 관련해서는 사찰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뿐만 아니라 중단의 기구인 정보보존위원회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의 불사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재가자 佛事觀 인식전환"

발제 II : 바람직한 불사방향

이평래 <충남대 철학과 교수>

불사의 개념은 시대에 맞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렇다 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불사는 어떤 개념인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사의 의미는 거의 모두가 조성·건축 주조를 의미한다. 물론 사원을 건립하는 것 자체나 오래된 불교문화유산을 보수하는 일들이 포교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결과물보다 더 필요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방법이 갖춰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불 때 불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인터넷이나 TV, 라디오 방송에서 신현하면서 도 재치 넘치는 프로그램 개발해 포교하는 것도 필요하고,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 널리 보듬어 줌으로써 민중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수행종도를 진작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병들고 가난하고 버려진 이웃을 위해 심터를 건립하는 일도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사부대중에 의한 사찰의 공동경영과 재정 공개, 관혼상제 등 풍과의례를 제정하는 문제나, 세계를 불교화(佛敎化) 하기 위한 노력 등 지금 한국불교계가 해야 할 불사는 너무나 많다.

새로운 개념의 불사가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불사에 대한 그릇된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교라는 상징성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불교를 융성하게 하는 일은 불사의 개념을 바로 잡고 자비행을 펼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부 기자)

허술한 수탁시설 관리

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딸기원어린이집을 수탁한 주체는 봉선사인데, 지난 4년간 어린이집 관련 통장을 박 씨가 관리하게 된 과정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고 조치로 딸기원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봉선사의 "적법한 인사조치", 박 씨의 "부당한 해고"라는 공방만이 두드러지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도 '해임 통보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임 사유의 적법성은 물론 합법적인 과정을 밟았어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풀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딸기원어린이집 사태를 거울로 삼아 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나 불교단체는 수를 늘리기보다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주지 일면)와 수탁시설인 딸기원어린이집 前 원장 박경주 씨의 갈등은, 불교계의 허술한 시설 관리나 미숙한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봉선사 총무국장 선우 스님 등이 4월 9일 딸기원어린이집을 방문해 실사를 벌인 후 박 씨와 보육교사들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한 데 이어, 5월 12일자로 박 씨를 해임한 데서 양측의 공방이 노골화 됐다.

봉선사는 해임통고서에서 "박 씨가 원아 모집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재정 흐름 역시 투명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성급한 해고'라는 지적이 있다. 박 씨가 40여 명 정원의 딸기원어린이집을 4년 넘게 운영하며 예 결산을 전담했고 구리시청 으로부터 매 분기별 680여 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온만큼 이를 본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5과목 강의), 야간수업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희욱(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법패전수자)
조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중(동국대), 정병조(동국대)
교육목적
1학년 1학기(14주) 불교학 개론, 인도불교사, 불교경전개설,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원시불교, 아비달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유식사상,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법화사상, 화엄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모집 및 전명 (2년제 야간 - 출강·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불교학 출강 00명, 불교학 통신 00명, 불교학 편입 00명
지원자격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편입생에 한함)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특전사항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학장 해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제 3 회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
1. 취지 불교음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찬불가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포교사업으로 창작찬불가를 공모하여 의미있는 불교음악인을 발굴하고자 창작찬불가를 공모함
2. 행사내용 불교적인 정서가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밝고 즐겁게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
3. 참가요령 1인 2곡까지 응모가능 하며 응모작품은 가사가 적힌 멜로디악보 1부, 카세트테이프 제출, 작품속에는 작사,작곡자의 성명을 비롯한 악보외의 표식은 하지말것, 신청서는 중앙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배부
4. 진행과정 작품접수 : 2001년 10월4일 ~ 10월20일까지 (16일간), 본선진출자정보 : 2001년 10월 31일 (개별통보 및 중앙홈페이지에 게시), 본선경연대회일자 : 2001년 12월1일, 심사위원 : 불교음악의 권위자로 본선당일 발표 (예선심사 : 악보/테잎심사 본선심사 : 경연대회)
5. 시상내역 대상 1곡(상장,상패,상금300만원), 우수상 1곡(상장,상패,상금100만원), 장려상 2곡(상장,상패,상금50만원), 아름다운 노래말상 1곡(상장,상패,상금50만원), 입선 5곡(상장)
6. 참고사항 기타 공모대회 내용은 공모요강을 반드시 참조할 것, 제3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제 3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 운영위원회
전화 02-739-1830 인터넷 : www.buddhism.or.kr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